

Co-constructing Empire in Early Chosun Korea: Knowledge Production and the Culture of Diplomacy, 1392-1592

Sixiang Wang

초록

- 제국은 강제력과 설득력으로 움직인다.
- Fairbank의 tributary system 이야기 비판 -> 조공국의 agency를 과소평가한다.
- 조선은 사신제도를 통해서 자율적인 능력(agency)를 발휘했다.
- 황화집 *Hwanghwajip* 皇華集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Chapter 4

In Empire's Name: Korean Diplomacy during The Rise and Rule of Prince Suyang, 1449-1467

- * 수양은 1452년 10월 명사신으로 가고 1453년 10월에 계유정란을 일으킴
- * 수양 등극전후의 대중관계가 조명이 덜 되어 이를 조명할 필요가 있음
- * 국내적 권력장악(55년 세조 등극)을 위해서 명과의 외교관계를 이용함
- * 명 역시 내홍(1450년의 토문지변 영종(몽골이 납치) -> 경태제 -> 영종 복위(1457년의 탈문지변))
- * 이러한 과정에서 수양대군은 자신의 집권 정당성 확보와 통치의 용이성을 위해서 사대 조공 외교와 명사신 등을 수단으로서 활용함 => 수양의 제국질서에서 통용되던 상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을 닦은 인물(Realpolitik의 전형)
- * 믿을 수는 없고 윤색이 많이 되어 있기는 하나, 조선의 실록을 통해서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음: 명방문 과정에서 수양의 군주적 자질의 우수성, 등극의 필연성 강조, 조선출신 명 내시와의 담합관계 수립

<수양의 사절단>

- * 1452년 수양은 단종책봉의 사은사로 명에 감
- * 동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음 -> 왕실의 진정한 대표, 자신의 자신감과 능력을 명에 과시 등
- * 단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수양의 명 방문은 그의 군왕으로서의 자질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음(명조정의 꼬끼리도 물러설 정도의 위엄)
- * 방문으로 인해 수양이 주인공이 되고 명 조정의 대신은 주인공을 칭찬하는 사람으로 묘사됨
- * (그러나 실제로 명황제는 수양을 만나지도 않았고, 명조정은 세종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었음)
- * 단종실록은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수양의 군주로서의 덕성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사전적으로 군주가 될 인물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든 혹은 사후적으로 그의 등극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사적으로 구성된 것이든 간에...)
- * 이는 결국 명과의 외교, 즉 수양의 사절단을 수양적 정치적 정당성에 활용한 사례임

<담합> => 조선 출신 명조정 내시(조선 사절단)와 수양일파의 단합

- * 수양의 사절단 경험은 위에서 말한 상징성 외에도 실제로 수양의 등극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실제로 도움이 됨
- * 조선 출신 명조정의 내시들과 수양 일파와의 교분관계가 수양의 명사절단 방문 시기에 그리고 이들 조선 내시 사신의 조선 방문 시기에 만들어 짐

<천명> =>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것

- * 신속주로 하여금 책봉을 얻어내는 사절로 명에 파견하고 책봉사를 받은 이후 한확은 사은사로 보냄
- * 그리고 조선출신 내시들을 통해서 명조정의 도움을 받음

<천과의 경쟁> => 명과의 경쟁

- * 명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는 수양(세조)이 형성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이 흡수하고 조선에서 명으로 나가는 정보는 철저히 통제함(단종 자살(?) 등의 정보는 통제됨)
- * 명-조선 관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으나 갈등도 존재했음
- * 여진족 관리를 둘러싸고 명과 조선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는 명의 허락 없이 이미 명

으로부터 수직한 건주여진의 동산(Tongshan(童山, also 董山 and 充善; Manchu: Cungšan, ?-1467))에게 세조가 관직을 하사한 것(私受)이 빌미가 됨 -> 명은 진가유(陳嘉猷)를 파견하여 세종을 견책함(269)

* 진가유가 도착한다는 소식을 이미 명에 심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조는 미리 듣고 준비하면서 한양 내의 여진인을 모두 멀리 보내고 진가유의 진출속도를 줄임; 그리고 매우 공손하게 진가유를 대하고 건주여진은 금수인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입조했다고 위장함

* 진가유의 귀국 이후 여진에 대한 사수는 없었으나 세조는 올랑합(the Uryangkhai(Kr: *Oryanghap* 兀良哈)) of the Korean northeast 등 여진족에 대해서 매우 공세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취함

* 명으로부터 受職한 올랑합의 추장 Lang Parahan(浪孛兒罕 ? -1459) 의 처형 역시 명의 노여움을 삼 -> 견책 위해 장녕 파견 -> 세조의 치밀한 준비로 역시 별문제 없이 해결됨(랑패아한은 조선인이며 또한 그가 명의 관직을 받은 것을 몰랐다고 발 뺨)

* 장녕의 보고서에는 랑패아한의 명 수직에 대한 언급이 없이 세조는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고 적었으나 이는 명사신과 세조의 공모에 의한 은폐임; 명의 사신 역시 조정에 솔직한 보고서 명만 국경을 관리하는 장수에 대한 징벌을 가져 올 것을 잘 알고 있었음 <-> 명의 기록은 이와는 전혀 달리 조선이 명사신을 보고 놀라서 떨었다고 기록함

* (277) Ming envoys, literati, eunuchs and officers alike to Sejo instruments for achieving his own political ends.

<결론>

* 세조는 정당성의 취약함으로 인해서 명의 사신을 극진히 대하였음;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는 과정에서 Ming connect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 -> (281) process of appropriating empire -> obedient vassal의 역할을 수행하여 Ming empire 내에서 deflect imperial attention 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세조 이후 역대 조선의 왕들에게 명과의 조공 및 사신왕래는 비용이 드는 부담이 됨; 조공물품의 운반(corvee transportation) + 밀무역 + 왕래 물품의 사적 전용 등도 증대함

* 충성스러운 조공국, 제후국으로 조선의 이미지는 세조의 Realpolitik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후대에 이는 하나의 규범으로 고정됨

Chapter 5

Brilliant Are the Flowers: Empire, Civilization, and Sovereignty in Choson-Ming Envoy Poetry, 1457-1592

- * 시문교류(envoy poetry)를 통해서 조선과 조선관리(원접사)는 자신의 목적과 이익에 맞게 명제국(명의 관행과 상징)을 co-opt 하고 co-construct할 수 있었음
- * 황화집은 1457년 처음 발간(영종의 복귀를 알리는 명사신이 왔을 때); 이후 1633년까지 계속 발간됨; 6500편의 시와 산문으로 구성; 1773년 영조 때 종합본이 출판
- * 조선이 명에 대해서 자신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됨 -> literary diplomacy” (詞賦外交) 의 시작
- * 시부에 능통한 인물들이 명-조선 외교를 담당하면서 내시, 군인, 역관 등이 명-조선 외교에서 밀려남
- * 사부외교는 명조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선의 전략의 의도적 결과임 -> 시부를 통해서 명과 조선의 관계에 대한 조선의 의도 혹은 희망 등이 전해 짐 -> 조명에 의한 조명관계의 공동건설(co-construction) (290)의 역할을 하게 됨 -> 충성스러운 조공국 조선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조선이 원하는 조선을 조공관계에서 만들어 냄

<황화집의 발견: 초기 조선의 시관행>

- * 조선과 명의 시가 대강 반반이며, 양국 군주에 대한 언급을 줄여서 양국 관계가 양대 문인간의 관계로 치환되는 효과를 가져 옴 => 군주의 대표자로서가 아닌 상호정체성의 형성(상호인정을 통한 하나의 정체성 수립?)
- * 황화는 시경(?)서 나온 단어(*Classic of Poetry*. The poem, “Brilliant are the flowers” (Ch: *Huanghuang zhehua* 皇皇者華)) 로 황화집서 자주 언급되지는 않았음
- * 과거의 주나라 시절을 공유함으로써 양국 문인 사이에 imagined community의 형성 효과를 가져옴
- * 양국 문인은 제국의 근간이 되는 이념적 세계관에 충실하게 되는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함 (단지 황제와 조선국왕에 충실한 별개 국가의 집단이 아님)(294) -> cultural parity가 형성됨 (301)
- * 감정의 표현으로서 시(詩言志)는 명에 대한 조선의 사대(모화주의)의 진정성을 잘 표현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 짐 ->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현실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것만으로 조선 문인의 시를 파악하는 제한적임

* 시를 통해서 조선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도 했음 -> 감정은 정치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 정치를 구성해 나감 => (297) Poetry writing in diplomacy, however, was not simply a matter of entertaining Ming envoys, for Chosŏn court poets invested their writing with moral and political claims that impacted the legitimacy and authority of the Chosŏn state on the one hand, and the ideological construction of the Ming and its empire on the other.

* (297) Envoy poets wrote for social moments.

* 조선과 명은 조공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화적인 견지에서는 동료라는 인식을 창출하는 효과를 지님

* 또한 이 사절 간의 시문은 문학적인 것이며 동시에 정치적인 것이므로 조선의 柳夢寅과 명의 Qian Qianyi 錢謙益 의 문학적 비판은 한 면만 본 것임 -> 기본적인 목적은 명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맞음(encomium to empire)

<제국찬양과 학술적 문체>

* 왕을 칭송하는, 다소 현실과는 동떨어진 문체인 태각체("Secretariat Style"(Ch: *taigetǐ* 台閣體))로 시문을 지어서 다소 지루한 느낌이 듦

* 그러나 중국이 사신을 파견하는 경우(첫번째 사례로 예겸 Ni Qian 倪謙 의 경우 경덕제의 즉위를 알리려고 온 시기)는 대체로 권력 이행기이므로 황제의 지위의 존엄함으로 격식을 차려서 전달할 필요가 있었음 -> 태각체의 사용 이유 -> (307) Disembodied ideals of empire were constructed against the imperfect reality of imperial virtue that Ming officials and Chosŏn courtiers alike knew too well.

* 이러한 시문을 통해서 명은 또한 명의 제국문명 덕분에 조선이 문명국이 되었고, 또한 명은 이전의 왕조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함

<문명의 문제점: 동방으로의 흐름 혹은 동방에서의 기원?>

* 명은 전통적으로 문명(성교 聲教)이 중원에서 동방으로 흘러들어가 조선은 늘 수입국과 열등국으로 파악됨

* 그러나 명태조와 홍무제 등은 한 때 조선을 야만국으로 보고 명의 문명적 주권이 미칠 수

없는 국가로 보았음

* 그렇다면 문명화를 이룬 조선은 독립적인 문명의 힘을 지니고 있는 셈이 됨 -> 특히 세종대에 독자적인 문명화를 추구함 -> 조선의 문화적 주권성을 주장함; 조선 조정은 조선사회를 스스로 문명화시켰음

* 양국 사절은 명의 영향력을 인정하였으나, 조선은 조선의 특별한 지위를 암암리에 잊지 않음

* 조선은 초기에 조선 스스로 문명화 작업을 추진하고 이룩함

* 조선의 문명화는 명의 영향력과 조선의 자주적 문명이라는 두 시각 모두를 통해서 읽혀져야 함(322)

* (323) 서거정의 글에서 나오는 취지: 문명은 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전과 고대에서 오는 것임; 조선과 중국의 문명은 모두 동일한 연원에서 동등하게 도출된 것임 => mutuality and parity between 조선 and 명, reciprocative hierarchy

* 서거정의 김사월의 효심 찬양: 이러한 효심은 조선군주의 덕에 기이한 것이지 명황제의 은덕이 전파된 성교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 부각

<과거의 재현: 고전양식의 조율>

* 명 사신의 Classic of Songs(앞에 나온 Classic of Poetry와 다른 듯) 인용(명은 곧 천하를 다스렸던 주나라와 같음을 암시)에 대해서 응접사는 또한 시경을 인용하여 조선이 원래 예로부터 시문이 넘치게 많았던 지역임을 강조함 => 고전인용에 고전으로 응수하여 양국 문명의 기원은 공히 고전, 고대에 있었음을 강조

* 조선 응접사 -> 조선은 고전고대와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고 있는 국가임을 시경을 빌어서 강조함

<결론>

* 사신 간에 시문인 황화집을 분석해 보면 명의 문명전파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측면도 있으나 분명히 명에 대한 조선의 동시대성(coevality)에 대한 주장도 드러나고 있음

=====

4장 질문

* 과연 세조는 명사신들을 철저히 이용한 것일까? 정말 명보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주장appropriating empire 혹은 exploit Ming trust, 이는 사실일까? 왜 저자는 단종실

록, 세조실록만을 토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어떤 게 사실인지는 규명하지 않는가? 왜 명의 기록은 언급하지 않는가?

* 중국주변 국가, (예컨대 조선 등)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어느 학파적 흐름의 연장선에서 왕스상의 글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과연 세조만 이렇게 명제국 내의 외교적 상징을 활용했고 다른 조선의 왕들은 세조만큼 기민하지 못했는가?

* 명은 바보였는가? Was Ming only credulous?

=====

5장 질문

* imagined community는 과장은 아닌가? 문인 사절 간의 교환에서 내용은 결코 조명이 대등하다는 것이 아니었을텐데 시문의 교환에서 준거가 공유되고 형식이 동일하다고 해서 peer의 관계가 성립이 되나? 다만 문인 사절단 간에만 그렇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